

여성결혼이민자의 가구소득과 직업유무가 가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자본 조절효과 검증*

배 경 희

(한국필벽재단)

김 석 준

(한국필벽재단)

[요 약]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가구소득과 직업유무가 가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자본의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이다. 분석자료는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활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조절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통제변수로는 연령, 학력, 자녀유무, 한국어능력을 투입했으며, 독립변수는 가구소득과 직업유무 그리고 조절변수인 사회자본 요인은 신뢰, 참여, 네트워크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가구소득, 직업유무 모두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관계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가구소득과 직업유무가 사회자본 요인들과 상호작용을 할 때 가족관계 만족도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절효과는 사회자본 수준이 높고 낮음에 따른 비교를 통해 더욱 분명하게 증명되었다.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관계 만족도에 대한 사회자본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이와 같은 결과를 기초로 사회복지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 여성결혼이민자, 가족관계 만족도, 신뢰, 참여, 네트워크, 사회자본, 조절효과

1. 문제제기

우리사회가 명실공히 다문화사회로 변화되기까지 소요된 기간은 20년도 채 되지 않았다. 1990년대

* 본 연구는 한국필벽재단 필벽다문화연구소의 연구사업 일환으로 진행된 연구임.

중반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국제결혼과 외국인노동자의 유입은 사회, 경제, 문화, 정치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우리사회를 바꾸어놓았다. 특히 2000년대 들어 나타난 한국남성과 외국여성 간 국제결혼에서의 특징은 아시아지역, 그 중에서도 동남아시아 출신 여성들과의 국제결혼이 급증하였다는 점이다. 자신의 낮은 경제적 지위와 열악한 문화자본으로 인해 자국의 여성들과 결혼하기 어려운 남성들은 외국 여성과 결혼하고자 하며, 외국남성과 결혼하고자 하는 여성은 자국의 경제적인 열악함과 자국 남성들의 경제적 무능함에 좌절하여 보다 잘 사는 나라로 이주하려고 하기 때문이다(이재경, 2009: 186; Jones and Shen, 2008: 20).

그러나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여성들의 경우, 이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한국인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순간부터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계층에 속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장현주, 2011). 우선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일련의 선행연구들은 한국생활에의 적응 문제,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과 동시에 경제적 문제, 한국인 배우자 가족과의 관계 등으로 인해 삶의 만족도가 대체로 낮은 편임을 보고하고 있다(권구영·박근우, 2007; 박서영 외, 2009). 실제로 여성결혼이민자와 마주하는 실천현장에서는 경제적 문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자신의 한국어실력 부족으로 취업 활동을 자제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시어머니나 남편이 절대 반대 또는 유보적 허락을 하며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또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아서 자신이 일을 해서라도 친정집에 돈을 보낼 수밖에 없는 여성결혼이민자에게도 남편이나 시부모가 반대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여성결혼이민자가 생활능력이 생기면 남편이나 가정을 떠날 수도 있어 이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문화와 풍습이 다른 결혼이민자들은 자신의 가족문화와 배우자가족의 문화가 바로 충돌하게 되면서 언어장벽은 물론 경제문제, 가족 상호작용, 가족규범, 가족에 편입되는 과정의 문제 등 적응과 관련된 많은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설동훈 외, 2005; 박미정·엄명용, 2009; Chang and Myers, 2003). 특히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사회문화적 적응과정에서 겪는 보편적 문제에 더하여 임신과 출산, 양육문제가 혼합되며 결혼 내 갈등이 시부모나 남편과의 갈등으로 이어지며 가정폭력, 가족해체 등 많은 사회문제를 양산하고 있다(한건수, 2006; Chou, Wang, Chiang, Lin, Kang, and Lee, 2006). 따라서 다문화사회라는 새로운 문화적 공존상황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과 새롭게 관계 맺은 가족들의 상호 문화적응을 위한 정책적·실천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동안 이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측정하는 지표는 긍정적 지표인 생활만족도와 부정적 지표인 우울, 불안 등으로 측정되었는데(Berry, 1997), 지금까지의 여성결혼이민자들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이들의 부정적 결혼동기와 결혼중매업자를 통한 결혼경로, 저개발국가 출신여성들의 결혼상품화 등을 조명하며 긍정적 측면보다는 부정적 측면인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에 주목했다(이혜경, 2005; 이영분·이유경, 2010; Castles and Miller, 1998; Kofman, 1999). 하지만 이 경우 '부적응'이라는 이들의 부정적 산물을 감추는 데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한계를 지닐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이 주력했던 병리중심의 관점보다 긍정적 인지와 정서인 만족에 초점을 두는 강점중심관점에 입각하여 생활만족도의 하위개념 중 하나인 가족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가족은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제도로 개인생활에 대한 만족수준은 주로 가족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가능할 수 있으며, 실제 생활만족도를 측정하는 하위 요인 대부분은 가족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김승권 외, 2005).

한편 최근 유럽국가 간 이주민 생활만족도를 검증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사회경제적 지위나 부의 축적과 같은 객관적 성공지표에 더해 사회적 접촉, 사회적 지원, 사회적 관계망 등으로 대표되는 사회자본(social capital)이 생활만족도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ohnke, 2008). Garcia와 그의 동료들(2002)의 연구결과도 스페인에 거주하는 모로코, 페루 여성의 관계망 내 스페인 사람 수를 측정한 결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스페인 사람의 수가 많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반면 가족과 지역사회로부터의 소외는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외국인 노동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노유성(2004)의 연구도 주기적으로 참석하는 모임, 절친한 모국인 친구, 모국인 친구만큼 가깝게 지내는 현지인 친구 등과 같은 사회적 연결망이 있을수록 낮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사회자본이 생활만족과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은 있으나(박길성, 2000; 박희봉·이희창, 2005), 사회자본이 생활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효과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만 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최근의 실증분석에서는 사회자본이 지니는 효과를 검증한 다수의 연구(강유진, 2010; 손성철·정범구, 2010; 이현기, 2010; 전지혜, 2010; 김현옥·김경호, 2011)를 통해 사회자본이 독립변수와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조절요인으로 분석되어진 바, 본 연구에서는 사회관계적 측면에서의 사회자본이 가족관계 만족도의 양상을 조율하는 조절변수일 것이라는 가정 하에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조절효과분석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의 방향(direction) 또는 강도(strength)를 살펴보는 데 효과적인 분석방법으로 알려져 있다(Baron and Kenny, 1986). 그러나 조절효과분석은 표본수가 적은 경우 검증력이 약화되어 조절효과를 포착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한인수, 2002: 148). 특히 기존의 연구들은 연구 참여자 수가 제한적이고 연구대상이 특정지역에 국한되어 있었으며, 서비스 수혜자에 대한 조사들도 쉼터 등 보호여성들을 표본으로 사용하거나 서비스기관 접근성에 있어서도 편차가 있어 대표성 확보가 상당히 제한적이었다(한건수, 2006). 이로 인해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사회자본의 이론적 토대는 어느 정도 마련되었으나 사회자본의 조절효과 입증은 상대적으로 어려웠다. 그러나 본 연구는 2009년 정부에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전국 규모로 실시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김승권 외, 2010)의 원자료를 이용해 이러한 한계를 일정 부분 극복하려고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관계 만족도 영향요인을 국제결혼가정의 가구소득과 이들의 직업유무를 중심으로 조명하고, 가구소득과 직업유무가 이들의 가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및 그것이 이들의 사회자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가족관계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한 목적이다.

2. 이론적 배경

1) 여성결혼이민자와 가족관계 만족도

가족관계는 가족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관계와 심리적 관계를 모두 포함하는 가족 행동의 총체이자 가족 상호작용의 역동과정으로 정의된다(유영주, 1984). 또한 가족관계 만족은 가족관계의 지속과 해체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전체적인 결혼생활과 배우자, 배우자의 가족들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로 표현된다(이경성, 2001). 가족관계 만족도는 생활만족도의 하위 개념 중 하나로 생활만족도의 4개 영역인 개인생활 만족도, 가족생활 만족도, 가족관계 만족도, 기타 영역 가운데 가정생활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김승권 외, 2005: 180-185). 이수연(1999)은 가족관계 만족도를 “가족생활 속에서 가족원들 간의 상호작용 가운데 느끼는 전반적인 만족수준”으로 가족관계 전반(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친족관계)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충족된 느낌이라고 정의한다.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있어 가족관계는 가족역할의 수행에 따른 주관적 경험이자 한국사회에서의 적응을 예측하는 유력한 변수(김현숙, 2010)이며, 전반적 삶의 만족과 정신건강, 사회적 관계에서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신기영·육선화, 2000; 이창식, 2010). 여성결혼이민자들에 있어 가족관계 만족도가 중요한 까닭은 결혼이민이라는 삶의 전이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복합적 위기 상황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을 둘러싼 사회관계적 속성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가족관계’이기 때문이다(Liu, Chung, and Hsu, 2001).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관계 만족도를 다루는 연구는 매우 드물다. 특히 가족관계 중 배우자와의 관계는 어느 정도 연구가 진척되었으나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나 부모-자녀 관계, 배우자 형제자매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이창식,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배우자의 부모와의 관계, 배우자의 형제자매와의 관계를 포함한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관계 만족도 영향요인에 대해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2) 여성결혼이민자와 사회자본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 남성들과의 결혼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한국에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찾으려는 목적이 많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설동훈 외, 2005). 그러나 단지 경제적 안정만을 위해 한국인과의 결혼을 선택하는 경우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며(이혜경, 2005; 김나영, 2007), 이들의 이주 이유인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또한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사회자본(social capital)¹⁾ 요인으로, 지금까지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던 경제·사회

적 요인과 더불어 인간관계를 통해 얻어지는 사회자본 요인이 삶의 만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박희봉·이희창, 2005).

Inglehart(1997)에 따르면 1인당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게 되면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물질적 측면에서 탈물질적으로 변화하여 삶의 목표는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사회자본에 의해 충족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유사한 연구로 박희봉·이희창(2005)은 삶의 만족에 영향요인으로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함께 신뢰, 참여, 네트워크를 핵심요소로 하는 사회자본을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개인의 사회경제적 요인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사회자본 요인과 결합할 때 더욱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었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에서의 결혼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자원은 부족한 대상이다(김나영, 2007). 이로 인해 여성결혼이민자들에 관한 최근 연구들은 주로 정신건강이나 가족해체 등에 대한 사회자본의 긍정적 효과들을 다루고 있다(정기선·한지은, 2009; 박재규, 2010). 연구결과,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지만 고용지위가 불안하고 경제생활 수준도 낮아 전반적인 생활만족도가 낮으며, 사회적 연결망이 부족하고 사회참여에 대한 기회도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이들 여성들에게 사회적 지지와 참여와 같은 사회자본을 투입하자 적응이나 정신건강의 문제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김나영, 2007; 장지혜, 2007). 구체적으로는 본국 가족과 친족 간의 유대관계는 주요한 사회자원이며(장지혜, 2007), 가족 내 유대관계를 통한 신뢰수준이 높을수록,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 밀도가 긴밀할수록 생활만족감이 높았다(박미정·엄명용, 2009). 이처럼 사회자본의 주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다수 존재하나 표본의 대표성과 같은 한계로 인해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자본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을 조절변수로 상정하여 논의를 전개하려 한다.

사회자본에 대한 구성요소는 학자들마다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으나 어떤 요소에 더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미시적 측면에서의 접근인 유대(bonding)로부터의 신뢰와 참여, 거시적 측면에서의 접근인 연계(bridging)로부터의 참여, 사회적 규범, 네트워크 등으로 나뉘고 있다(김윤승·정술, 2011: 4; Putnam, 1993에서 재인용). 이에 본 연구는 사회자본의 공통요소로 볼 수 있는 신뢰, 참여,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신뢰란 위험에도 불구하고 행위자가 자신의 기대나 이해에 맞도록 행동할 것이라는 주관적이고 긍정적 기대(Gambetta, 1988)로, 상대방으로부터의 배신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의지(Burt, 1998)를 말한다. 한국과 같은 소위 '연줄사회'에서는 개인적 수준에서의 신뢰가 높지만 공적 영역에서의 신뢰는 낮은 사회유형이다(박길성, 2000; Fukuyama, 1995). 특히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경우, 낮은 한국 사회

1) 사회자본에 대한 개념 정의는 학자들 간 관점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대체로 사람들 간의 관계에 기초한 신뢰, 네트워크, 참여를 핵심적 요소로 한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일치점을 보이고 있다(박희봉·이희창, 2005). Putnam(1993)은 상호 간의 이익을 위해 조정 및 협동을 촉진하는 규범, 신뢰, 네트워크를 사회자본으로 정의하였고, Newton(1997) 역시 사회자본을 규범, 신뢰, 참여를 기본으로 하는 가치, 정치·경제·사회적 목적달성을 위해 서로를 이어주는 네트워크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학자들의 이 같은 논의를 받아들여 사회자본을 신뢰, 참여, 네트워크로 규정하고자 한다.

에서 상대방으로부터의 배신과 같은 큰 위험을 무릅쓰면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들이 한국사회에서 최초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기껏해야 친족 정도지만 여가나 취미, 직장생활 등을 매개로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거치게 되면 동료나 이웃으로 신뢰 관계가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신뢰관계 범위를 모국인, 한국인, 기타 외국인으로 하여 이들의 가족, 동료, 이웃에 대한 신뢰를 분석하였다.

참여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의 몫을 담당하며, 사회적 자아로서의 각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의 총체를 뜻한다(Palmore, 1981). 일반적으로 사회활동은 사회참여, 사회운동 등의 용어와 구분되지 않고 사용되나(김나영, 2007), Palmore(1981)는 한 인간이 삶의 전 과정을 통해 자신의 행동반경을 가족 이외의 다른 구성원들로 확산시키면서 자신의 관계망을 넓혀가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하면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신의 몫을 담당한다고 하였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영역은 정치활동, 경제활동, 노조활동, 지역활동, 학습활동, 여가활동, 종교활동 등 여러 분야들이 있으나 실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사회참여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김승권 외(2010)는 한국에서 투표권을 가진 귀화 여성결혼이민자 가운데 57%가 투표경험이 있는 반면 시민단체나 정당회원으로 가입한 경험은 거의 없었으며, 지역사회활동 참여의향은 매우 높음에 비해 실제 참여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였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사회참여의 현실적 범위를 나의 가족, 친족 모임, 배우자의 가족, 친척 모임, 자녀 학교의 학부모 모임, 모국인 친구 모임, 지역주민 모임으로 규정하여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참여를 분석하고자 한다.

네트워크는 상호 면식이나 인정이 제도화된 관계, 즉 특정한 집단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획득되는 실제적 혹은 잠재적 자원의 총합으로 정의된다(Bourdieu, 1986). 현재 정부의 다문화가정 지원계획은 주로 자녀교육, 학생교육, 정보화 지원 등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서 2세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계획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여성결혼이민자 당사자들을 위한 지원은 여전히 미비하다. 현 시점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당면하는 다양한 심리, 사회, 경제적 문제를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주변인의 도움과 지지는 물론, 정부 차원에서의 공식적·제도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네트워크를 제도화된 구성원들의 실제 혹은 잠재 자원으로 보고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사회적응과 통합을 위해 제공되는 한국어교육, 사회적응교육(문화체험, 예절교육 등), 가족상담 및 교육, 임신 및 출산 관련 지원, 자녀양육, 학습지원 등의 수혜경험과 도움정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요인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는 가족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연령, 학력, 자녀유무, 한국어 능력 등을 들고 있다(임정빈, 1987; 양점도·김춘택, 2006; 이영분·이유경, 2010).

연령의 경우, 부인의 나이가 어릴수록 결혼생활 만족도가 높았는데(임정빈, 1987; Tran and Nguyen, 1994), 비교적 최근 연구 역시 연령이 낮을수록 결혼생활 만족도가 높았다(김나영, 2007; 김연수, 2007). 또한 교육수준이 높은 모(母)는 중년기 위기감과 우울이 상대적으로 낮고 생활만족도가

높았으나, 교육수준이 낮은 모(母)일수록 자녀와의 관계가 소원한 것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미숙 외, 2000). 이밖에도 학력이 높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경우 전문대졸 이상은 생활만족도가 높은 반면 고졸은 생활만족도가 가장 낮았으며 그 차이가 유의해(정주연, 2008), 교육수준이 높은데서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온 연구를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교육수준이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들도 있어(김연수, 2007; 이지혜, 2008) 교육수준과 가족관계 만족도에 대한 후속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하겠다. 의사소통 능력의 경우, 말하기 능력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낮다는 연구(김나영, 2007)와 한국어 수준이 생활만족도와 유의한 관계가 없다는 연구(채병희, 2009)로 나뉘는데 한국어 실력으로 변인을 투입하여 가족관계 만족도를 측정하는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한편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여성결혼이민자의 가구소득과 직업유무는 일반가정에서와 마찬가지로 부부관계 및 가족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로 꼽힌다. 소득수준이 높은 가정이 그렇지 않은 가정에 비해 결혼생활 만족도가 높았고(강은령, 1989; 김연수, 2007; 김은경, 2008), 외국의 사례에서도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이 가족 해체나 가족 내 갈등이 많았다(Lowenstein and Katz, 2005). 또한 미국으로 이주한 노동자의 경우에도, 이주한 곳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전반적인 생활만족도가 높았다(Massey and Akresh, 2006). 한편 가구소득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경우 소득 자체보다는 소득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이동원, 1988), 중간 소득 이상부터는 결혼만족도 증가가 둔화된다는 연구결과들도 있다(이종배, 1988; 강은령, 1989). 또한 직업유무는 가구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상황을 반영하는 척도임과 동시에 적극적 사회참여를 통해 사회경제적 지위를 변화시키고 보다 높은 사회자본을 획득할 수 있는 경로가 되기도 한다(김윤승·정술, 2011). 취업상태에 따른 결혼만족도에서는 취업한 경우 결혼만족도가 높다는 연구(정진희·이정우, 1991)와 여성의 취업으로 인해 남편의 결혼만족도가 높다는 연구(이정련, 1982)도 있으나 직업유무에 따른 차이가 없다(김명자, 1977)는 연구결과도 있다. 그러나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직업유무가 가족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된 바 없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보건복지가족부, 법무부, 여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raw-data)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9년 조사 시점 현재 현지에서 살고 있는 결혼이민자 13만 1천여명 가운데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 58,051명을 조사 대상으로 선별하였다.

1) 주요변수 측정

종속변수인 가족관계 만족도는 총 4개 문항,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배우자, 자녀, 시부모, 배우자의 형제자매와의 관계에 대한 응답자의 주관적 만족도를 합산하여 이를 가족관계 만족도로 구성하였다. 통제변수인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는 조사 시점에서의 연령(한국나이), 최종 학력, 자녀 유무, 한국어 능력을 포함하였으며, 독립변수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가구소득과 직업유무를 측정하였다. 조절변수인 사회자본 요인으로는 신뢰, 참여, 네트워크를 선정하였다. 신뢰는 여성결혼이민자가 신뢰할 수 있는 타인의 존재 여부에 대한 응답으로 총 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여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사회적 관계를 위한 활동 빈도에 대한 응답으로 총 5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네트워크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의 적응을 위해 받고 있는 각종 교육과 지원 등에 대한 경험과 도움 정도에 대한 응답으로 총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응답 가운데 비해당은 0점, 무응답은 결측치(missing value)로 처리하였다.

〈표 1〉 변수개념 및 내용

변수개념		세부측정내용	측정방법
종속변수		가족관계 만족도	배우자, 자녀, 시부모, 배우자의 형제자매와의 관계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총 4개 문항)의 합산. 모두 5점 척도이며 범위는 0~20점.
통제 변수	인구사회학적 요인	연령	연속변수.
		학력	서열변수.
		자녀유무	가변수(유/무).
		한국어능력	말하기, 읽기, 쓰기 점수의 평균값을 합산.
독립변수		가구소득	국제결혼가정의 월평균 가구소득. 등간척도(9점 척도).
		직업유무	여성결혼이민자의 직업활동여부. 가변수(취업/실업).
조절 변수	사회자본 요인	신뢰	신뢰할 수 있는 타인(모국인, 한국인, 기타 외국인)의 존재여부에 대한 응답(총 9개 문항)의 합산. 모두 가변수이며 범위는 0~9점.
		참여	사회적 관계를 위한 활동 빈도에 대한 응답(총 5개 문항)의 합산. 모두 5점 척도이며 범위는 0~25점.
		네트워크	각종 교육 및 지원에 대한 수혜 경험과 도움 정도에 대한 응답(총 5개 문항)의 합산. 모두 5점 척도이며 범위는 0~25점.

2) 분석방법

분석에 사용한 통계프로그램은 IBM SPSS Statistics 19.0으로 표본의 전반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여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에 대한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분석했다. 이후 독립변수의 주효과 검증을 위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고, 변수 간 다중공선성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투입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분석 결과와 공차한계(Tolerance),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등을 확인했다.

조절효과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조절변수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같은 상황적 관계(contingency relationship)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에 기초한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절회귀분석은 상황적 관계를 나타내는 상호작용항을 직접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와 같은 상황적 관계를 살펴보는 데 매우 적합한 분석이다(Baron and Kenny, 1986). 또한 다른 독립변수들이 회귀식에 포함된 후 상호작용항의 설명력에 대한 유의성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상호작용효과를 판별하는데 유용하며 자료에 포함된 정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분석방법은 1단계에서 통제변수를, 2단계에서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그리고 3단계에서 독립변수(X)와 조절변수(Z)의 상호작용항(X×Z)을 회귀식에 차례로 투입 후 마지막 3단계 회귀식의 R^2 변화량(ΔR^2)이 유의한 수준(Aiken and West, 1991)이라면 조절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Carte and Russell, 2003) 해석하였다. 끝으로 조절회귀분석(MMR)의 독립변수 및 조절변수와의 다중공선성 문제와 추정치의 왜곡 및 검증력 저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 과정을 거쳐 표준화된 변수를 본 분석에 투입하였다.

4. 분석결과

1)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통제변수인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상자들의 연령은 평균 33.4세였으며, 학력은 평균 '중학교 졸업' 이상이였다.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전체 응답자 가운데 66%였다. 한국어 능력은 평균 8.95점으로 말하기와 읽기, 쓰기 모두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가구소득은 2.08점으로 대략 '100~20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35%가 취업상태였다. 조절변수인 사회자본 요인은 신뢰 2.81점, 참여 6.12점, 네트워크 11.40점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가족관계 만족도는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4.01점,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4.41점, 배우자의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 3.82점, 배우자의 형제자매와의 관계 만족도 3.74점으로 자녀와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가 매우 높았으며, 배우자

의 부모와 형제자매와의 관계 만족도 또한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왜도와 첨도를 중심으로 자료의 정규성을 확인하였다. Kline(2005)의 기준에 따르면 왜도는 절대값 3을, 첨도는 8~10을 초과하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본 결과, 관측된 자료 모두 정규성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변수특성	N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유효	결측				
인구사회학적 변수	연령	58,051	0	33.4217	9.51197	.772	.125
	학력	57,463	588	3.68	.924	-.213	-.177
	자녀유무	54,124	3,927	.66	.475	-.653	-1.574
	한국어능력	57,091	960	8.9502	3.53304	.007	-.589
가구소득 및 직업유무	가구소득	47,642	10,409	2.08	1.174	1.218	4.188
	직업유무	57,032	1,019	.35	.476	.642	-1.588
사회자본	신뢰	51,433	6,618	2.8190	1.38818	.529	1.984
	참여	54,674	3,377	6.1257	4.39110	.797	.686
	네트워크	54,357	3,694	11.4058	6.92828	.532	-.915
가족관계 만족도	배우자	53,416	4,635	4.01	.913	-.647	.010
	자녀	35,413	22,638	4.41	.750	-1.088	.712
	시부모	40,304	17,747	3.82	.958	-.434	-.214
	배우자 형제자매	47,580	10,471	3.74	.942	-.305	-.222

2) 상관관계 분석

독립변수의 주효과를 검증하기 전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변수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족관계 만족도와 직업유무(-.199), 가구소득과 네트워크(-.046), 직업유무와 참여(-.073), 직업유무와 네트워크(-.052) 사이에는 약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특히 직업유무는 가족관계 만족도와 부정적 관계를 보이지만 가구소득과는 긍정적 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직업유무는 신뢰를 제외한 모든 사회자본 구성요소와 부정적 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두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이를 통해 직업이 없고 가구소득 수준이 높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관계 만족도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사회자본과 더 높은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각 변수별 상관관계 분석

	가족관계 만족도	가구소득	직업유무	신뢰	참여	네트워크
가족관계 만족도	1					
가구소득	.152*	1				
직업유무	-.199*	.035*	1			
신뢰	.140*	.124*	.002	1		
참여	.280*	.092*	-.073*	.268*	1	
네트워크	.125*	-.046*	-.052*	.080*	.198*	1

* $p < .001$

3) 독립변수 주효과 검증

가족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피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투입된 변수의 다중공선성을 진단한 결과 다중공선성이 의심되는 변수는 없었다. 본 모형의 설명력은 25.8%로 모형 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먼저 통제변수인 연령($B = -.117$), 학력($B = -.064$), 자녀유무($B = 4.014$), 한국어능력($B = .114$)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나이가 어릴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자녀가 있는 경우, 한국어능력이 높을수록 가족관계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립변수인 가구소득($B = .436$)과 직업유무($B = -.759$) 모두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 소득수준이 높은 가정이 그렇지 않은 가정에 비해 결혼생활 만족도가 높았던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했다(강은령, 1989; 김연수, 2007; 김은경, 2008). 또한 조절변수인 신뢰($B = .155$), 참여($B = .058$), 네트워크($B = .009$)는 모두 가족관계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사회자본에 관한 기존의 연구결과(박희봉·이희창, 2005)를 지지하고 있다.

〈표 4〉 가족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구분		B(SE)	β	Tolerance	VIF
상수(Constant)		11.701(.152)			
통제변수	연령	-.117(.003)	-.211**	.818	1.222
	학력	-.064(.028)	-.014*	.845	1.183
	자녀유무	4.014(.058)	.393**	.930	1.076
	한국어능력	.114(.008)	.080**	.913	1.095
독립변수	가구소득	.436(.022)	.113**	.957	1.045
	직업유무	-.759(.055)	-.078**	.918	1.089
조절변수	신뢰	.155(.018)	.049**	.909	1.100
	참여	.058(.006)	.056**	.893	1.120
	네트워크	.009(.004)	.013*	.919	1.088
F		963.094**			
R^2		.258			

** $p < .001$, * $p < .05$

4) 조절변수 상호작용효과 검증

(1) 신뢰의 조절효과 검증

신뢰와 가구소득 및 직업유무의 상호작용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통제변수만을 투입한 1단계 모형의 설명력은 31.4%로 나타났다. 연령(B=-.153)과 학력(B=.152), 자녀유무(B=4.373), 한국어능력(B=.091)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가 있는 경우, 한국어능력이 높을수록 가족관계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위 <표 4>와 상반된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이는 통제변수만을 투입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독립변수와 조절변수가 투입된 2단계 모형에서부터는 그 영향력이 소멸되기는 하나 다시 부정적인 양상으로 선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2단계 모형의 설명력은 34.4%로 통제변수만을 투입한 1단계 모형에 비해 설명력이 3.1% 증가하였으며, 모형 변화에 따른 적합도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 통제변수인 연령(B=-.131), 자녀유무(B=4.331), 한국어능력(B=.082)은 여전히 가족관계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독립변수인 가구소득(B=.573), 직업유무(B=-.879)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조절변수로 투입한 신뢰(B=.277) 역시 가족관계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신뢰 수준이 높아질수록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가족관계 만족도 또한 높아짐을 보여준다.

<표 5> 신뢰의 조절효과 검증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B(SE)	β	B(SE)	β	B(SE)	β	
상수(Constant)	13.523(.116)		11.833(.121)		11.552(.146)		
통제변수	연령	-.153(.002)	-.286*	-.131(.002)	-.244*	-.130(.002)	-.242*
	학력	.152(.023)	.028*	-.016(.023)	-.003	-.015(.023)	-.003
	자녀유무	4.373(.045)	.417*	4.331(.045)	.413*	4.323(.045)	.412*
	한국어능력	.091(.006)	.064*	.082(.006)	.058*	.083(.006)	.058*
독립변수	가구소득			.573(.018)	.134*	.781(.040)	.183*
	직업유무			-.879(.045)	-.086*	-1.335(.097)	-.130*
조절변수	신뢰(Z)			.277(.015)	.077*	.271(.015)	.076*
상호작용항	가구소득*Z					-.071(.012)	-.054*
	직업유무*Z					.156(.030)	.049*
R^2 / F		.314 / 4560.021*		.344 / 2995.641*		.346 / 2340.012*	
$\Delta R^2 / \Delta F$		-		.031 / 624.829*		.001 / 30.05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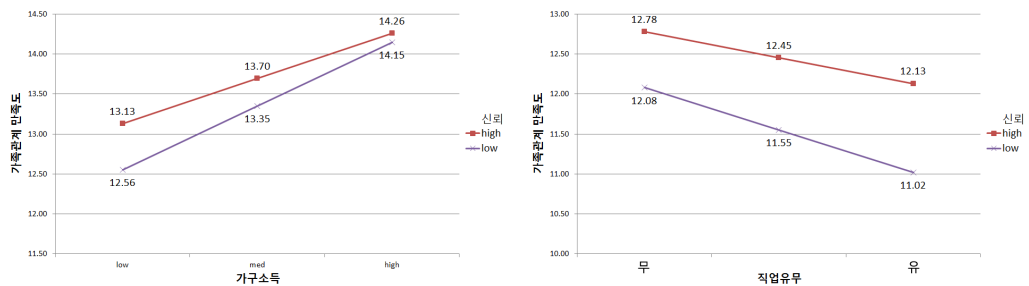
신뢰의 조절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3단계 모형의 설명력은 34.6%로 2단계 모형에 비해 설명력이 1%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의 변화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또한 가구소득과 신뢰(B=-.071), 직업유무와 신뢰(B=.156)에 대한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

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가구소득과 신뢰, 직업유무와 신뢰 사이에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즉, 신뢰 수준에 따라 가구소득 및 직업유무가 가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변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회귀분석만으로는 어떠한 조건에서 조절효과가 나타나는지 정확한 양상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어(박현선·이상균, 2008), 본 연구에서는 Aiken and West(1991)의 방식에 기초한 Jose(2008)의 방식을 사용하여 조절효과의 양상을 도표로 제시하였다. 도표의 작성은 조절변수(사회자본)를 표준화하여 각각의 평균을 기준으로 +1 표준편차는 높은 수준(high), -1 표준편차는 낮은 수준(low)으로 나누어 작성하였으며(Aiken and West, 1991; Jose, 2008), 조절변수의 상이한 수준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해 단순기울기 분석(simple slope analysis)을 실시하였다(박현선·이상균, 2008; Preacher, Curran, and Bauer, 2006).

〈그림 1〉은 신뢰와 상호작용효과가 있는 2개의 조절변수에 대한 도표로 첫 번째 도표는 가구소득과 신뢰와의 상호작용을 보여준다. 가구소득과 가족관계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신뢰 수준이 높을 경우 단순기울기는 .682, t값은 15.259($p < .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반면 신뢰 수준이 낮을 경우 단순기울기는 .879, t값은 19.667로 기울기 값은 신뢰 수준이 높을 경우보다 더 가팔랐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는 신뢰 수준이 높을 경우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가족관계 만족도에 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또한 두 번째 도표는 직업유무와 신뢰와의 상호작용을 보여주는데, 신뢰 수준이 높을 경우 단순기울기는 -1.118, t값은 -21.943($p < .001$)으로 유의하였으며, 신뢰 수준이 낮을 경우 단순기울기는 -1.551, t값은 -11.181($p < .001$)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신뢰 수준이 높을 경우와 낮을 경우 모두 취업활동을 함에 따라 가족관계 만족도가 더욱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울기 값은 신뢰 수준이 높을 경우가 낮을 경우보다 더 완만한 것으로 나타나 신뢰가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취업활동으로 인한 가족관계 만족도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시켜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1〉 신뢰에 따른 가구소득 및 직업유무의 영향

(2) 참여의 조절효과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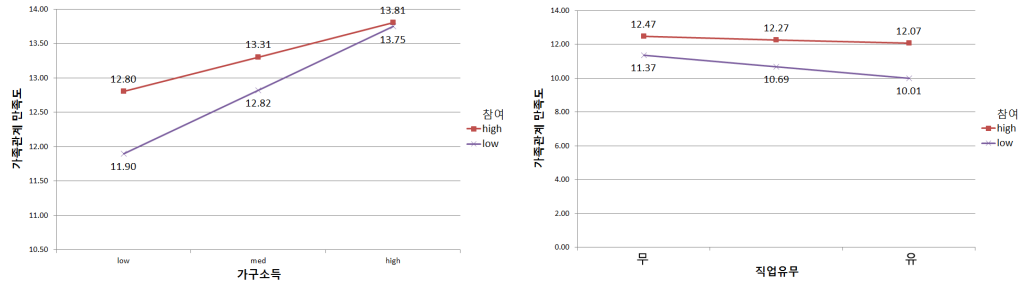
다음으로 참여가 가지는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통제변수만을 투입한 1단계 모형의 설명력은 30.4%로 투입된 네 변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2단계 모형의 설명력은 34.2%로 설명력은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력을 제외한 모든 변수가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관계 만족도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조절변수로 투입한 참여(B=.143) 역시 신뢰와 마찬가지로 가족관계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참여 수준이 높을수록 이들의 가족관계 만족도 또한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3단계 모형의 설명력은 34.5%로 모형 변화에 따른 적합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해 조절효과가 입증되었다. 즉, 국제결혼가정의 가구소득과 여성결혼이민자의 직업유무는 참여에 따라 가족관계 만족도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표 6〉 참여의 조절효과 검증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B(SE)	β	B(SE)	β	B(SE)	β	
상수(Constant)	13.222(.115)		11.244(.119)		10.945(.133)		
통제변수	연령	-.155(.002)	-.284*	-.122(.002)	-.224*	-.119(.002)	-.219*
	학력	.177(.023)	.032*	-.010(.023)	-.002	-.029(.023)	-.005
	자녀유무	4.338(.045)	.405*	4.138(.045)	.386*	4.104(.045)	.383*
	한국어능력	.106(.006)	.074*	.100(.006)	.069*	.102(.006)	.071*
독립변수	가구소득			.579(.017)	.133*	.858(.031)	.197*
	직업유무			-.898(.044)	-.085*	-1.630(.075)	-.155*
조절변수	참여(Z)			.143(.005)	.119*	.140(.005)	.116*
상호작용항	가구소득*Z					-.041(.004)	-.076*
	직업유무*Z					.115(.010)	.081*
R^2 / F	.304 / 4746.835*		.342 / 3218.954*		.345 / 2546.400*		
$\Delta R^2 / \Delta F$	-		.037 / 822.425*		.004 / 127.028*		

* $p < .001$

한편 참여의 단순기울기 검증은 〈그림 2〉와 같다. 먼저 가구소득과 가족관계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참여 수준이 높을 경우 단순기울기는 .677, t값은 21.439($p < .001$)로 유의하게 나타났지만, 참여 수준이 낮을 경우 단순기울기는 1.038, t값은 32.825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참여 수준에 높을 때 가구소득과 가족관계 만족도 사이의 관계에 더 긍정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두 번째 도표에서는 참여 수준이 높을 경우 단순기울기는 -1.515, t값은 -21.043($p < .001$)으로 나타났으며, 참여 수준이 낮을 경우 단순기울기는 -1.630, t값은 -23.954($p < .001$)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참여 수준이 높을 경우와 낮을 경우 모두 이들이 취업활동을 하게 되면 가족관계 만족도에도 부정적인 관계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그러나 참여 수준이 높을 경우, 취업활동에 따른 가족관계 만족도의 부정적인 양상을 막아내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사회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사회적 관심과 지지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림 2〉 참여에 따른 가구소득 및 직업유무의 영향

(3) 네트워크의 조절효과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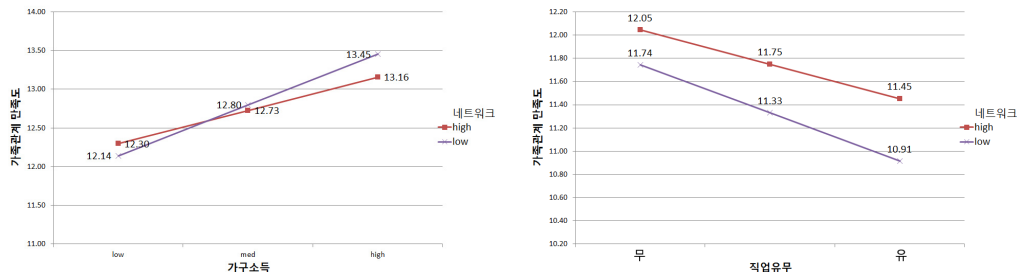
끝으로 네트워크가 가지는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통제변수를 투입한 1단계 모형의 설명력은 22.4%이며 연령($B=-.137$), 학력($B=.095$), 자녀유무($B=4.029$), 한국어능력($B=.129$)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가 있는 경우, 한국어능력이 높을수록 가족관계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추가로 투입한 2단계 모형 역시 이전 분석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조절변수인 네트워크($B=.024$) 역시 가족관계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3단계 모형의 영향력은 24.4%로 모형 변화에 따른 설명력의 변화는 .001에 불과했지만 이러한 변화에 대한 모형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네트워크에 대한 조절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네트워크의 경우 역시 가구소득($B=-.011$)과 직업유무($B=.018$)에서 유의한 상호작용효과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가구소득과 직업유무가 가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네트워크의 수준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7〉 네트워크의 조절효과 검증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B(SE)	β	B(SE)	β	B(SE)	β
상수(Constant)		13.112(.135)		11.774(.149)		11.527(.166)	
통제변수	연령	-.137(.003)	-.240***	-.118(.003)	-.207***	-.118(.003)	-.206***
	학력	.095(.028)	.020**	.018(.027)	.004	.012(.027)	.003
	자녀유무	4.029(.057)	.386***	4.036(.057)	.387***	4.029(.057)	.386***
	한국어능력	.129(.008)	.089***	.132(.008)	.091***	.132(.008)	.091***
독립변수	가구소득			.467(.021)	.119***	.622(.040)	.158***
	직업유무			-.749(.055)	-.075***	-.952(.103)	-.095***
조절변수	네트워크(Z)			.024(.004)	.036***	.024(.004)	.037***
상호작용항	가구소득*Z					-.014(.003)	-.046***
	직업유무*Z					.018(.008)	.023*
R^2 / F		.224 / 1927.801***		.244 / 1229.543***		.244 / 959.906***	
$\Delta R^2 / \Delta F$		-		.020 / 231.817***		.001 / 12.477***	

*** $p < .001$, ** $p < .01$, * $p < .05$

또한 조절효과의 방향성을 파악하기 위해 〈그림 3〉과 같이 단순기울기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구소득과 가족관계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네트워크 수준이 높을 경우 단순기울기는 .525, t값은 11.739 ($p < .001$)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네트워크 수준이 낮을 경우 단순기울기는 .718, t값은 16.077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네트워크 수준에 높을 경우 가구소득과 가족관계 만족도 사이의 관계에 더 긍정적인 관계가 나타난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두 번째 도표에서 네트워크 수준이 높을 경우 단순기울기는 -.952, t값은 -9.077($p < .001$)로 나타났으며, 네트워크 수준이 낮을 경우 단순기울기는 -.934, t값은 -9.845($p < .001$)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위와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수준이 높을 경우와 낮을 경우 모두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취업활동을 하게 되면 이들의 가족관계 만족도도 더욱 감소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기울기는 네트워크 수준이 높을 경우가 낮을 경우에 비해 더 완만하여 네트워크 수준이 높을 경우 이들의 취업활동에 따른 가족관계 만족도의 저하를 완충시켜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 네트워크에 따른 가구소득 및 직업유무의 영향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가구소득과 직업유무가 가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자본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연구이다. 연구에 사용한 데이터는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자료이며 2009년 조사시점 현재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 58,05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방법은 기술통계분석, 다중회귀분석과 조절효과 검증을 위한 '조절회귀분석(MMR)'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결혼이민자의 연령, 학력, 자녀유무, 한국어능력은 모두 이들의 가족관계 만족도에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학력의 경우 이후 투입된 변수들로 인해 그 영향력이 소멸되었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의 가구소득과 직업유무는 각각 가족관계 만족도에 상반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이후 투입된 사회자본 변수와는 무관하게 가족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자본의 세 요인인 신뢰, 참여, 네트워크 모두 가족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금까지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전통적 요인이던 사회경제적 요인과 더불어 관계를 통해 얻어지는 사회자본 역시 삶의 만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박길성, 2000; 박희봉·이희창, 2005; 장지혜, 2007).

셋째, 사회자본이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가족관계 만족도를 조절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가구소득과 사회자본 요인과의 상호작용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가족관계 만족도를 더 긍정적으로 조율하였으며, 직업유무와 사회자본 요인과의 상호작용은 이들의 취업활동으로 인한 가족관계 만족도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하는 효과를 보여주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현장에서의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면 첫째,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경제활동 지원은 이들의 가족관계 만족도를 높이고 가족 해체를 예방하기 위한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있어 취업활동은 길으로 보기에 경제적 자립의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들 여성들의 취업활동은 가족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부족, 직장생활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오히려 가족관계 불만족 및 가족해체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본 연구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사회참여 및 신뢰, 네트워크 구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지원노력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친구 및 학부모 모임, 지역주민 모임의 참여를 허용하고 독려함은 물론 이들 여성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능과 문화적 지식, 언어능력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봉사활동이나 재능기부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독려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다. 아울러 이들 여성들의 한국어능력은 사회자본 확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도구이기에 이들 여성들의 한국어능력 수준에 맞는 단계별 한국어교육 및 교재개발, 강사양성 및 지속적인 교육지원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둘째,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위한 직업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이 요구된다.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있어 직업활동은 경제적 어려움의 탈피는 물론, 한국사회에서의 성공적인 정착, 고국에서의 사회자본 단절로 인한 상실감 해소 등 건강한 자아실현의 수단이기도 하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문화적, 언어적, 예술적 능력과 교육배경, 본국에서의 직장경력 등을 최대한 반영한 맞춤형 직업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 직업교육, 직업상담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은 이들 여성들로 하여금 경제 활동을 통한 사회경제적 안정에 도움을 주어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가정해체 예방과 건강한 사회통합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사회자본을 확충하고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및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다문화 교육과 관련 프로그램 발전이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와 정부는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신뢰적 지지와 수용, 차별철폐를 위한 노력도 계속되어야겠지만 관련부처들의 선심성 혹은 일회성,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과 현실성 있는 복지정책 노력이 병행될 때 여성 개인 뿐 아니라 이들 여성들의 가족과 자녀들이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일선 학교 및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이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및 인권교육 활성화, 차별 없고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환경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전국 단위의 원자료를 사용함으로써 기존 연구들이 지닌 연구대상에 대한 대표성 확보의 한계를 극복한 것과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가족관계 만족도에 대한 사회자본의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했다는 데에 의의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몇 가지 한계가 있어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자본은 현재까지도 분명한 학문적 정의와 하위요소가 밝혀지지 않은 바, 본 연구에서는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신뢰, 참여,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사회자본의 하위요인을 상정하였다. 둘째, 신뢰의 정의를 신뢰할 수 있는 타인의 존재 유무로 정하였으나 이는 참여나 네트워크와는 그 수준과 범위가 달라 이를 동일 범주로 다루기에 무리가 따랐다. 향후 사회자본 측정을 위한 표준화된 척도 개발을 통해 이와 같은 한계가 개선되기를 희망한다. 셋째, 여성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 결과가 일반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들과 어떻게 차별화되는지에 대한 후속연구가 이어질길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 강유진. 2010. “가족 소득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족과 학교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1(3): 285-439.
- 강은령. 1989. “부부의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위험주부/미취업 주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구영·박근우. 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전라남도 거주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사회연구』 2: 197-219.
- 김나영. 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 사회적 지지와 사회참여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명자. 1977. “주부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 주부의 취업여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문.

- 김미숙·박민정·이상현·홍석표·조병은·원영희. 2000. 『저소득 편부모 가족의 생활실태와 정책과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권·조애저·박세경·김유경·이승미·성미애·이건우. 2005. 『가족실태조사 척도개발 및 예비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권·김유정·조애저·김혜련·이혜경·설동훈·정기선·심인선. 2010.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연수. 2007. “서울거주 결혼이민자 여성의 결혼행복감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 18: 83-94.
- 김윤승·정술. 2011. “장애인의 사회적 자본이 취업 및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인 재활협회. 『제3회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 1-27.
- 김은경. 2008. “중소도시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 26(6): 83-94.
- 김현숙. 2010.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2(2): 135-159.
- 김현옥·김경호. 2011. “아동방임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요인에 대한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67: 219-243.
- 노유성. 2004. “외국인노동자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길성. 2000. “사회적 자본과 삶의 질”. 『아세아연구』 45(2): 109-139.
- 박미정·엄명용. 2009.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가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 14(2): 1-26.
- 박서영·하수정·송지영·안현선·조희원·박성연. 2009. “일본인 모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양부모 한인가정 어머니의 자녀관 부모역할신념 및 삶의 만족도와 양육태도간의 관계 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6): 43-54.
- 박재규. 2010. “경기도 국제결혼이민자의 가족해체 및 특성 분석”.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회 2010 후기 사회학대회 논문집』. pp. 303-320.
- 박현선·이상균. 2008. “청소년기 비행친구의 영향에 대한 보호요인의 조절효과 -자아존중감, 부모애착 및 지도감독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7: 399-427.
- 박희봉·이희창. 2005.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요인 비교분석- 경제·사회적 요인인가? 사회자본 요인인가?”. 『한국행정논집』 17(3): 709-728.
- 설동훈·윤홍식. 2005. “국내 거주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적응과 사회복지정책”.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회 2005년도 추계공동학술대회 논문집』. pp. 247-265.
- 설동훈·김운태·김현미·윤홍식.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정책방안』. 서울: 보건복지부.
- 손성철·정범규. 2010. “변혁적 리더십과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조직사회 자본의 조절효과”. 『경영경제연구』 33(1): 85-108.
- 신기영·옥선화. 2000.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의 가족역할과 직업역할의 보상/비용에 따른 심리적 복지”. 『대한가정학회』 35(8): 29-51.
- 심인선. 2010. “결혼이민자의 취업 및 직업훈련 실태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165: 36-45.
- 양점도·김춘택. 2006. “농촌 외국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탐색적 연구”. 『사회복지행정학회』 6(1): 1-20.
- 유영주. 1984. 『신가족관계학』. 서울: 교문사.

- 이경성. 2001. "이혼의도, 시도 및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한국심리학회』 6(2): 97-119.
- 이동원. 1988. "도시 부부의 결혼의 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수연. 1999. "부부의 가족주의 가치관 및 가족관계 만족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영분·이유경. 2010. "거주지역에 따른 결혼이민자 여성의 자아분화 및 문화적응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1): 145-157.
- 이재경. 2009. "사랑과 경제의 관계를 통해 본 이주결혼". 『여성학논집』 26(1): 183-206.
- 이정련. 1982. "남편의 성역할태도와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종배. 1988. "도시주부의 결혼 만족도와 아노미가 일탈행위에 미치는 영향 : 서울시 사무직 종사자의 부인들을 대상으로". 부산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지혜. 2008. "여성결혼이민자의 부부관계만족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창식. 2010.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관계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농촌지도와 개발』 17(4): 717-742.
- 이현기. 2010. "노인자원봉사활동과 사회자본: 사회자본 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50: 263-289.
- 이혜경. 2005. "혼인이주와 혼인이주가정의 문제와 대응." 『한국인구학』 28(1) 73-106.
- 임정빈. 1987. "가치성향, 의사결정양식 및 가정생활만족".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지혜. 2007.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자본과 생활만족도".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현주. 2011. "다문화가정 이주자의 합리적 선택과 현실 :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25(4): 189-213.
- 전지혜. 2010. "장애차별경험과 장애인의 우울감의 관계 연구 :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와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5: 51-80.
- 정기선·한지은. 2009. "국제결혼이민자의 적응과 정신건강". 『한국인구학』 32(2): 87-114.
- 정주연. 2008. "베트남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사회복지학생연구논총』 1: 228-262.
- 정진희·이정우. 1991. "도시저소득층 취업주부의 가정 내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119-135.
- 채병희. 2009.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정도와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 문경시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건수. 2006. "농촌지역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 39(1): 195-243.
- 한인수. 2002. "조절회귀분석의 통계적 검정력에 대한 연구". 『노사관계연구』 13: 143-161.
- Aiken, L. S., and West, S. G.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Newbury Park, CA: Sage.
- Baron, R. M., and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46(1): 5-34.
- Bohnke, P. 2008. "Does Society Matter? Life Satisfaction in Enlarged Europe". *Social Indicators Research* 87: 189-210.
- Bourdieu, P. 1986. "The Forms of Capital." pp. 241-258. in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 Sociology of Education*, Edited by J. Richardson. New York: Greenwood.
- Burt, R. S. 1998. "Not So Different After All : A Cross-discipline View of Trust". *Th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3(3): 393-404.
- Carte, T. A., and C. J. Russell, 2003. "In Pursuit of Moderation : Nine Common Errors and Their Solutions". *Mis Quarterly* 27(3): 479-501.
- Castles, S., and M. J. Miller. 1998. *The Age of Migration: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in the Modern World*. London: Macmillan.
- Chang, C. Y., and J. E. Myers, 2003. "Cultural Adaptation of the Wellness Evaluation of Lifestyle: An Assessment Challenge".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Counseling and Development* 35(4): 239-251.
- Chou, P. H., H. H. Wang, Y. P. Chiang, Y. R. Lin, C. W. Kang., and W. C. Lee. 2006. "The Pregnancy and Labor Experience of Southeast Asian Women in Transnational Marriages". *Journal of Evidence-Based Nursing* 2(4): 311-321.
- Fukuyama, F. 1995. *Trust :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Free Press.
- Gambetta, D. 1988. "Can We Trust Trust?". pp. 213-237. in *Trust : Making and Breaking Cooperative Relations*, Edited by Diego Gambetta. Cambridge: Basic Blackwell.
- Inglehart, R. 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Countri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Jones, G., and H. H. Shen. 2008. "International Marriage in East and Southeast Asia: Trends and Research Emphases". *Citizenship Studies* 12: 9-25.
- Jose, P. E. 2008. "ModGraph-I: A Programme to Compute Cell Means for the Graphical Display of Moderational Analyses: The internet version.",
<http://www.victoria.ac.nz/psyc/staff/paul-jose-files/modgraph/modgraph.php>.
- Kline, R. B. 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Guilford.
- Kofman, E. 1999. "'Birds of Passage' a Decade Later: Gender and Immigration in the European Union".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3(3): 269-299.
- Liu, M. F., H. H. Chung, and M. T. Hsu. 2001. "Adaptation of Foreign Brides in Taiwan". *The Journal of Nursing* 48(4): 85-89.
- Lowenstein, A., and R. Katz. 2005. "Living Arrangements, Family Solidarity, and Life Satisfaction of two Generations of Immigrants in Israel". *Ageing and Society* 25: 749-767.
- Garcia, M. F., M. G. Ramirez, and I. M. Jariego. 2002. "Social Support Locus of Control as Predictors of Psychological Well-being in Moroccan and Peruvian Immigrant Women in Spain".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6: 287-310.
- Massey, D. S., and I. R. Akresh. 2006. "Immigrant Intentions and Mobility in a Global Economy: The Attitudes and Behavior of Recently Arrived U.S. Immigrants". *Social Science Quarterly* 87: 954-971.
- Newton, K. 1997. "Social Capital and Democracy".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0(5): 575-586.
- Palmore, E. B. 1981. *Social Patterns in Normal Aging: Findings from the Duke Longitudinal Study*.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 Preacher, K. J., P. J. Curran, and D. J. Bauer. 2006. "Computational Tools for Probing Interaction Effects in Multiple Linear Regression, Multilevel Modeling, and Latent Curve Analysis". *Journal of Educational and Behavioral Statistics* 31: 437-448.
- Putnam, R. D.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Tran, T. V., and T. D. Nguyen. 1994. "Gender and Satisfaction with the Host Society among Indochinese Refugee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8(2): 323-337.

Moderating Effect of Social Capital in Regards to the Influence that Family Income and Job Status have on the Level of Satisfaction with Family Relationships Among Married Immigrant Women

Bae, Kyung-Hee

(Pearl S. Buck Foundation Korea)

Kim, Seok-Jun

(Pearl S. Buck Foundatio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capital in regards to the influence that family income and job status have on the level of satisfaction with family relationships among married immigrant women. We conducted the second analysis of “2009 National Survey of Multicultural Family State” and used moderated regression analyses. Controlled variables included age, education level, offspring status, and Korean proficiency, while independent factors included family income and job status. Moderating variables of social capital included trust, participation, and network. The results showed that all the demographic variables, as well as family income and job status, had significant influences on married immigrant women’s satisfaction with family relationships. In particular, when factors of social capital interacted with family income and job status, the study showed that it had a different influence on the satisfaction with family relationships. Moreover, the moderating effects have been shown to be more certified through its comparison of the increasing and decreasing trends of social capital. This research has been shown to be significant, based upon the findings on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capital in respect to married immigrant women’s level of satisfaction with family relations. Practical implications of our results in the context of social welfare were discussed.

Key words: Married immigrant women, Satisfaction with family relationships, Trust, Participation, Network, Social capital, Moderating effect

[논문 접수일 : 12. 03. 22, 심사일 : 12. 04. 16, 게재 확정일 : 12. 06. 27]